

전염병에 저평가된 옥석 찾아라... 개미, 4.8조 순매수

(1월)

1월 기관들, 5조 매도 '반대 행보'
지난달 20일 코로나 이슈 이후
개인 매수금액 60% 2.6조 매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집중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슈로 개인투자자들의 옥석가리기가 한창이다. 글로벌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탄탄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병 이슈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컸던 저평가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저평가 종목을 사들여 훗날 차익을 챙기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전략으로 풀이된다.

◆1월 개인 순매수 역대 최대

한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코스피는 전염병 악재에 무너졌다. 설 연휴 이후인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코스피는 4.37%, 코스닥은 4.26% 떨어졌다. 대형주도 4.39% 하락했다. 이 기간에 기관은 1조3755억원, 외국인은 1조2608억원씩 각각 순매도했다.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오히려 매수 규모를 늘리는 추세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4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감염 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음압이송카트를 옮기고 있다.

761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5조원 가까이 팔아치운 기관과 정반대 행보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통계를 집계한 2011년 8월 이후 월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

개인의 매수세는 신종코로나 이슈가 본격화된 후부터 두드러졌다. 전체 매수 금액의 60%에 가까운 2조6425억원을 지난 20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사들였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은 이 기간에 총 104조원가량 증발했으나 개인은 줄곧 '사자세'로 일관했다.

개인은 대형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3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 자우로 나타났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

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조정이 개인투자자에게 저가 매수의 호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종코로나 이슈가 불거지기 전인 20일 코스피 시장에서 6만2400원에 거래를 마친 삼성전자는 31일 10.63% 하락한 5만6400원에 거래를 끝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염병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것은 반도체 상승 2차 사이클에 동참할 기회"라고 추천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추세에도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은 여전하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는 반도체 업종에 치우쳐 기술적 부담이 커졌었다"며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단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불안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31일 코스피가 이틀째 1% 넘게 하락했다.

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크고 상장 기업의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 추가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주 매수... '저평가우량주 찾아라'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는 매수세가 다른 업종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동차와 철강 등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업종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가 가져온 시장 변동성을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한다. 윤영교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제조업의 경기 반등으로 경기민감 업종의 이익 부진이

안화될 것"이라며 "반도체 대형주에 몰린 매수 기운이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면서 자동차·은행·화학·철강 등 업종의 재조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 업종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지난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둔 탓이다. 신차 효과와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맞물린 만큼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올해 현대차 목표주가는 16만~18만원 선으로 압축된다. 현대차는 31일 코스피 시장에서 전날보다 1.96% 하락한 1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저점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수출 증가율, 관련 기업들의 이익증가율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감염자 수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시점이 돼야 진정한 주가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과의 무역 감소로 조선이나 철강뿐 아니라 중국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 원유 관련 업종인 화학, 정유 역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도심에도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2일 서울 명동 거리에 중구 보건소가 설치한 임시 선별 진료소가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예비군훈련 연기'

국방부, 3월2일~4월17일 이후로

동원예비군 훈련 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 넘게 연기된다. 이는 현역 군이과 달리 예비역들의 경우 이동행로 등 동선과약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일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될 예비군 동원훈련 및 지역 예비군 훈련을 4월 17일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육군 등 군 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예비군 훈련 연기를 개별적으로 받았다.

군 당국은 고심 끝에 적극적 예방차원에서 훈련 연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한 예비전력 관계자는 "이미 훈련소집 통지서가 발송된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는 훈련 연기가 별도 안내 될 것"이라면서 "동원훈련의 핵심자원인 비상근번예비군의 소집교육도 함께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일정 연기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올해 예비군 훈련이 물리면서 동원전력사령부 또는 향토사단 등의 야전부대에서는 부대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비군 훈련뿐만 아니라, 가족동반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을 열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미 관련 지침을 하달했고, 신병 입소식 등은 부대 내 자체 행사로 열린다.

오는 3~4일 예정인 입소식과 수료식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입소자들은 가족·친지 등을 입소장 밖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입소자 중 발열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증이 발생하면 귀가조치 되고, 신병교육 중 발생시 격리조치 될 수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美·호주·日 등 中에 문걸어 잠그는 지구촌

中 누적 사망자 300명 넘어서
시민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중국여행 자제 등 대응 총력전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퍼지며 누적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막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일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만4380명, 사망자는 304명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2590명, 사망자는 45명 늘어난 것이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위건위가 공식으로 통계를 발표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발병자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은 하루 만에 확진자가 1921명, 사망자는 45명 증가했다.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2110명이 중태로 알려졌다. 의심 환자는 1만 9544명에 달한다.

신종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을 막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신종코로나의 원원지인 중국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들을 별도 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14일은 신종코로나의 최대 잠복기간이다.

또 미국 정부는 2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7개 주요 공항으로 몰아 탑승객 감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도 1일 중국에서 출발한 외

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귀국하는 호주 시민들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여행정보를 4단계로 올려 호주 시민들에게 "중국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싱가포르 역시 1일부터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의 싱가포르 입국 또는 경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국민과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허용하되 14일간 격리 조치를 한다.

일본 정부도 1일 0시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공공 의료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오는 모든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국내 확진환자 3명 늘어 총 15명

>> 1면 '2주내 中 후베이성...'서 계속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

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 국민의 경우 입

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다"며 "제주 특별자치도와와의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 확산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해야 한다"며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고,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